

완도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 '호평'

지난 2008년 전국 최초 시작...매년 8억2천만원 투입 어장 환경 보호·어민 소득 증대 일석이조 효과 거둬

완도군에서는 매년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어장 환경 보호, 어민 소득 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며 어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완도군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매년 8억 2천여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완도는 6,990여가(26,559ha)에서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연간 해조류 생산량은 51만 1천 톤, 그중 미역과 다시마는 42톤을 차지한다.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뿌리와 줄기 등이 바다에 버려지면 바닷속에 퇴적되어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져 해양오염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군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상풍

성이 없는 미역, 다시마 꼬리 등을 수매한 다음 보관해두었다가 해마다 전복 먹이가 부족한 시기인 가을철(9-10월)에 어가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 어촌계에서 해조류 부산물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11월 말까지 균등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수협 및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수매부터 가공, 공급까지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6월에는 미역, 다시마 등을 2,544톤 수매하여 1,711개 어가에 627톤 공급하고, 다시마 꼬리는 75톤을 수매하여 378어가에 공급했다.



신우철 군수는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해조류 부산물을 전복 양식 어가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 친환경쌀 미국시장 공략...연간 500톤 수출예정

해남군은 8일 현산면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된 물량은 20톤으로, 앞으로 연간 500톤의 해남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특히 이번 수출은 지난 9월 명현관 해남군수의 미국 방문시 현지 식품회사인 민슬리(Minsley)를 방문, 송태진 대표이사 등을 만나 협이한 결과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쌀의 판로 확보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방미 성과에 힘입어 민슬리(Minsley)와 땅끝항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500톤 물량의 해남 친환경쌀을 미국 수출하기로 했다.

aT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해 전국 쌀 수출량이 약 1,600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500톤 친환경 쌀 수출 계약으로 해남쌀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농업·농촌 여건 개선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하여 김석순 군의회 의장, 김춘진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사장과 땅끝항도친환경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해남쌀 미국 수출을 기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응급상황 대비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 설치 260개소 설치 완료...조기 대응 가능



진도군이 주요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

'국가지점번호'는 등산로·하천 등 길목이 없는 비주거지역에서 등산객이나 자전거 이용자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좌표이다.

전국을 가로, 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구획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인근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소방서나 경찰서에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구조 등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진도군은 일회면 여귀산 일원 주요 등산로 등 총 26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 완료해 등산객과 관광객 등에게 조난·응급상황 대처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위험 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설치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등산이나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즉시 모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를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농촌진흥청과 배 농장 맞춤형 컨설팅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 전문가 기술지원 통해 해결

강진군은 지난 7일 도암면 배 농장에 농촌진흥청의 현장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에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해 최적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이 성사됐다.

이날 기술지원에 나선 전문가 3인은 과수분야 영농수 위원, 토양분야 강보구 위원, 병해충 분야 강호성 위원으로 의뢰받은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핵심 재배기술,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요령, 토양관리 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또, 최신 신기술 및 신제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농기와 수확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상담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작목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김성 장흥군수, 지역 특화 소득작목 재배현장 방문 65농가 55ha 재배...레드향·참다래 재배단지 방문 농가 격려



김성 장흥군수가 지역 대표 특화 소득작목 재배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8일 장흥군 관산읍 레드향 농장과 대덕읍 참다래 농장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은 장흥=김도영기자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일조량이 많고 온화한 기후 조건을 활용해 참다래, 레드향 등의 작목을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참다래는 대덕읍을 중심으로 65농가 55ha를 재배하고 있다.

11월 상순까지 수확이 마무리되어 현재 선별과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레드향은 관산읍을 중심으로 21농가 9ha를 재배하고 있으며 12월 말-1월 초가 되면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든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농자재 가격 인상, 농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참다래, 레드향 재배 농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장흥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환경제어 스마트팜 관리기술, 우량묘목, 생력화 장비 등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장흥군, 아동 진로체험 행사

장흥군은 지난 5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아동 대상 진로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놀이와 참여권 증진을 위한 이번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생 및 보호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군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웹툰작가, 네일아트, 3D펜전문가, 쇼콜라티에, 바리스타 등 10가지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은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 고장 알기-생생 장흥정보통'부스에도 참여해 장흥에 관한 퀴즈를 풀고 상품을 받아가기도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